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청신호'

순천시,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 '환영' 인구 1000만 동부권, 시민 역량 결집하며 설치 필요성 건의

순천시는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학

자 인력 양성을 위해 '22학년도부터 의료 인력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체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를 개설하여 양 지역에 의대 신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17개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인근 국가산단 등 밀집된 산업지역에서의 산업재해와 인구의 고령화 등 폭증하고 있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상급병원이 없어 중증·응급 환자들이 대도시 의료 인프라에 의존해 왔다.

또한 전남 동부권은 인구 100만이 밀집해 있고 영호남 교류의 거점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감염병 차단 전담병원에 대한 설치 요구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는 정부에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순천시의회·순천대학교와 함께 의과대학 관련 학과인 약학과와 간호학과 신설, 의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왔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신 소병철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과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은 의과대학 신설의 최적지인 만큼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부설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28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순천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대학과 병원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이후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자살 예방 '생명사랑 로고젝터' 설치 광양시, 야간 활동·유동인구가 많은 6개소에 설치



젝터(projector)의 합성으로 유리 렌즈(이미지 글라스)에 그려진 문구나 그림에 LED 조명을 비춰 바닥이나 벽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명장치를 말한다.

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안내와 함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들어줄게요', '당신 곁에 우리가! 힘든 마음 나눠요' 등 로고젝터에 생명존중 문구를 새겨 자살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자살 예방 홍보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보건소는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야간 활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생명사랑 로고젝터' 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로고젝터는 로고(logo)와 프로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안성식당 등 4개소 '행복천사가게' 지정

매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 기부 약정



여수시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진두)는 최근 동문동에 소재한 안성식당 등 4개소를 '행복천사가게'로 지정,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천사가게' 30개점, '행복천사가정' 8호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기부액은 동문동의 복지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의료·주거환경 개선 등에 지원된다.

이번에 행복천사가게로 선정된 업체관계자는 "동문동에서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

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진두 민간위원장은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천사가게(가정)'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왔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영화 동문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정기적인 기부로 소외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좋은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훈자가 아닌 더불어 같이 잘사는 동문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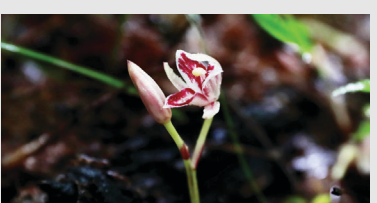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보성군,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 '대홍란' 발견

보성군은 24일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홍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대홍란'은 200축 가깝게 군락을 지어 자생하고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산림산업과 직원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숲 해설사 등 방문객들에게 특이한 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올해 중점적으로 찾아본 결과 대홍란을 발견했다."라며 "멸종 위기 식물인 만큼 잘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기업체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 업체 종사자 10명 전입

고흥군이 지난 24일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고흥사랑 주소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 근무여건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입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날 군 인구정책팀과 동강면사무소 민원팀의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으로 (유)푸드원 직원 등 10명이 전입하였다.

이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운영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고흥청정식품단지 1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전입 창구 운영 일정 등을

홍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한 성과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 주민등록 전입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한지 6개월 경과된 2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지원금 20만원과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감면지원, 군으로 전입



한 임직원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직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인구정책팀(☎830-5804)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